

# 서울 흥대·부산 북항에 창업 허브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

두 곳에 400개 스타트업 등 유치  
2026년까지 창업 랜드마크 계획  
뜻 장관 “혁신적 설계·신속 조성”

정부가 서울 흥대 인근, 부산 북항 일대를 글로벌 창업 허브인 ‘한국형 스테이션 F’로 조성한다.

‘스테이션 F’란 2017년 설립한 프랑 스 파리의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캠퍼스로 1000여개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에 들어서는 글로벌 창업 허브에는 각각 200곳씩, 총 400개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린다.

오영주 장관은 “수도권 창업 허브 선정을 위해 수도권까지 포함해 총 100여 곳을 물색했다. 수도권 지자체 8곳으로부터 후보지역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물건 등도 후보에 올랐다. 이를 통해 고른 15곳 정도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심의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 성수동과 흥대 일대가 물망에 올랐는데 흥대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흥대 인근(조감도)에 조성한다. 공간은 민간 건물을 리모델링해 입주한다.

흥대 권역은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돼 있고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 수도 1위인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유리하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글로벌 상권이 마련돼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기업(엔지니어링, 전문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국내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허브로 유치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소사이어티를 구현한다. K-콘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올해 말 설계에 착수,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글로벌 창업허브는 부산 북항 내 폐창고(조감도)에 조성한

다. 부산 북항 폐창고는 1978년 건축해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 인근은 청년·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문화·공공 인프라 및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춰 글로벌 창업 허브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또한 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 1011억 원을 활용해 지역 전략산업(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 지역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롯데 등 지역 기반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부산 북항 일대는 이미 창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중앙부처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

가 충분하다”면서 “정주여건도 인근에 단지 거주자를 위한 레지던스가 있고 수영·해운대도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어 거주와 출퇴근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를 구축해 각지에 산재한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수도권과 지방 양측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지역 간 창업생태계 격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글로벌 창업 허브(Twin-Hub)는 공동 멤버십 및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된 허브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주저 없이 이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 F(글로벌 창업 허브)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해 궁극적으로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동반위·한전KPS 협력사 ESG 지원 선도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전KPS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5일 동반위에 따르면 한전KPS는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발전설비(수화력, 원자력) 및 송변전설비 정비산업을 선도하며 세계 최고의 전력설비 정비 기술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PS는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참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산업 공급망 조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발전 정비산업 내 협력사의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지원사업, 공공·민간기업 안전 컨설팅 지원 등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교원그룹

### 펫 호텔 ‘키녹’ 론칭

교원그룹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한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KINOCK)’을 론칭하며 펫 호텔 사업에 진출한다.

25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키녹(KINOCK)’은 반려동물이 발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의 경계 없는 공존과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이란 키녹의 브랜드 철학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키녹 론칭을 통해 1500만 반려인을 신규 수요층으로 확보하고 가족친화 호텔인 ‘더스위트호텔’과의 시너지로 타깃별 맞춤형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호텔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키녹은 반려동물 동반 특화 호텔로 호텔 전체를 반려동물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면적 7000㎡(2120평),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기존 ‘스위트호텔 경주’를 전면 리노베이션해 34개 전 객실을 펫 특화 객실로 조성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 전경 조감도.

## “프라이빗한 공간에 정숙·쾌적한 승차감”

렉서스, 플래그십 MPV ‘LM 500h’  
업무·휴식 등 라이프스타일 소화

렉서스가 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끄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선보인다. 그 주인공은 ‘LM 500h’다.

렉서스코리아는 24일 서울 강남구 엔헤이븐에서 렉서스 플래그십 MPV인 LM 500h를 선보였다. 이번 모델은 편안한 정숙함과 쾌적한 승차감으로 업무부터 휴식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렉서스의 마스터피스다.

외관은 렉서스의 디자인의 핵심인

‘스핀들 보디(Spindle Body)’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차체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전면부의 심리스(Seamless) 타입 그릴은 스타일리쉬하면서 공기역학적 성능을 개선해 준다.

렉서스는 최상의 승차감과 주행감을 위해 노력했다. GA-K 플랫폼을 기반으로 뒤틀림 강성 확보하고, 새롭게 개발된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타입과 후륜 트레일링 암 기반 더블 위시본 타입의 서스펜션으로 안정적인 승차감과 운전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렉서스 관계자는 “해외에서 다른 차

량과 비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차량의 승차감도 좋지만 의외로 운전이 즐겁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량은 쇼퍼드리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 대한 우선도가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니다”라며 “운전자들 위해 스티어링, 액셀, 브레이크 등 기본 주행 성능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주행 성능은 2.4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기반으로 가속감과 풍부한 토크감을 자랑한다.

4인승 로열 그레이드 모델은 48인치



렉서스 디올 뉴 LM 500h.

울트라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파티션을 통해 진정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간으로 프라이빗 수준을 높였다. 이그제큐티브 6인승 이그제큐티브 그레이드는 3열 시트에도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했다. /백대성 기자 iunmcs@

## 시몬스, 티몬결제 4억 상당 제품 배송

소비자 우선...결제 끝난 제품 배송

올해 침대업계 1위에 올라선 시몬스가 티몬발 지급 불능 사태에 이은 PG 사 고객 환불 불가까지 소비자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몬스 침대는 티몬에서 이미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전격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통사와 PG 사 모두 본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 열중하며 결국 가장 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시몬스는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몬스 안정호 대표는 “회사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 필요”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계의 노란봉투법(노조관계 및 노동관계 조정 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청을 방문한 것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손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대성 기자